

## 후백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허인욱\*

###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후백제 연구 경향의 흐름 | 참고문헌       |
| 3. 주제별 연구 동향     | <Abstract> |
| 4. 후백제 연구의 향후 과제 |            |

### 국문초록

후백제는 신라 말의 혼란 시기에 건국되었다가, 936년에 멸망한 국가이다. 대략 40여 년 정도 존재했다. 하지만 936년에 고려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다. 고려를 세운 왕건과 대척점에 있었던 후백제는 연구자들에게 그리 큰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는 아니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성립되었다가 사라진 나라이다 보니, 남아 있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고 그로 인해 연구가 쉽지 않은 때문이었다.

후백제 관련 연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는 대개 연구자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전주와 같이 후백제와 관련이 깊은 지자체가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역사문화콘텐츠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후백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지원·개최하고 그 성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방식이 대두됐다.

후백제사의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문헌사료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데

\* 한남대학교 교수, E-mail: heoinuk@hnu.kr

에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와서는 발굴 작업이 증가했고, 발굴성고가 축적되면서 이를 통한 연구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후백제 도성의 위치 연구, 불교미술의 비교 연구 등의 증가가 그것이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의 증가는 문헌자료의 부족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자료의 부족은 연구 분야의 확장과 전문연구자의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쉽지 않겠지만, 기존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외에 각종 지리지나 새로운 문헌자료의 발굴과 함께 이를 정리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고학 발굴보고서 등의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자료의 접근이 손쉬워진다면, 후백제 연구자의 폭이 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후백제, 견훤, 전주, 후삼국

## 1. 머리말

후백제는 신라 말의 혼란 시기에 견훤에 의해 건국되었다가, 936년에 멸망한 국가이다. 대략 40여 년 정도 존재했던 나라이다. 하지만 936년에 고려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다. 고려를 세운 왕건과 대척점에 있었던 후백제의 역사는 연구자들에게 그리 크게 관심을 받는 주제는 아니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 존재했던 나라이다보니, 남아 있는 관련 기록이 그리 많지 않고 그로 인해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을 했던 듯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제강점기부터 후백제 관련 연구는 존재했으며, 198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연구 성과가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작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후백제 관련 연구 성과의 정리는 조법중, 「후백제와 태봉관련 연구동향과 전망」(『신라문화』 27, 2006)과 신호철, 「후백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 2015) 그리고 이도학, 「총론-후백제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21) 등이 있다. 이 글은 후백제 연구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각 주제별로 나누어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후백제사가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향후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2. 후백제 연구 경향의 흐름

근대역사학이 도입된 이후, 후백제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이는 일본인 학자들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津田左右吉은 「後百濟疆域考」(『朝鮮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를, 中村榮孝는 「後百濟王および高麗太祖の日本通交」(『史學雜誌』 38-8, 1927; 『日鮮關係史研究』, 1965) 등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당시 조선의 역사지리를 연구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후백제사를 연구했는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후백제가 고려보다 적극적임을 논했다. 국내 연구자로는 金包光의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佛敎』 49, 1928)가 있다. 이 연구는 남원 實相寺의 片雲和尚 부도에 새겨진 ‘正開’라는 연호가 견훤이 사용했음을 밝혀내어 후백제가 독자성을 가진 국가임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후백제 역사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1960년대 가서 金庠基에 의해 다시 연구가 이어졌다. 김상기는 「羅末 地方群雄의 對中通交」(『海圓黃義敦先生古稀記念 史學論叢』, 東國大學校史學會, 1960)과 「甄萱의 家鄉에 대하여」(『李秉岐博士頌壽紀念論文集』, 1966; 『東方史論叢』 1974) 등의 논문을 통해 견훤의 대외정책 및 출생 지역에 대해 다루었는데, 출생과 관련해서는 『삼국유사』의 광주출생설에 비중을 두었다. 이외에 文柄憲의 「後百濟의 興亡考」(『百濟文化』 1, 1967)도 발표되었으나, 개설적인 수준에 그쳤다.

1970년대에는 朴漢高이 「後百濟 金剛에 關하여」(『大邱史學』, 7·8, 1973)을 발표하여 1차 신검과 4차 금강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宋祥奎는 「甄萱의 完山立都說에 대한 고찰」(『全羅文化研究』 1, 1979)을 통해 후백제의 도읍지가 전주가 아닌 익산으로 비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다. 후백제의 도읍지를 익산으로 비정해야 한다는 학설은 주로 『三國遺事』 紀異조의 ‘署童說話’를 다루는 중에, 이를 甄萱의 탄생설화, 이른바 ‘蚯蚓交婚說話’와 연관시켜 후백제 도읍지를 益山에 비정하였던 것이다(史在東, 「甄萱傳」의 形成에 對하여, 『語文論志』 3, 1978).

후백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이후에 와서였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申虎澈을 들 수 있다. 신호철은 국내에서 후백제 연구를 체계화시킨 첫 연구자라 할 수 있는데, 그는 1989년에 『後百濟 甄萱政權 研究』라는 제목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은 1장 「甄萱의 出身과 社會的 進出」·2장 「甄萱政權의 成立」·3장 「甄萱政權의 地方支配와 豪族聯合政策」·4장 「甄萱政權의 對外政策」·5장 「甄萱政權의 몰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

백제의 성립부터 멸망까지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후백제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논문이다. 이후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甄萱關係 文獻의 檢討』(『百濟論集』 1, 1985)와 『甄萱關係 諸異說의 檢討』(『國史館論叢』 19, 1991)라는 논문을 추가해서 『後百濟 甄萱政權研究』(一潮閣, 1993)라는 단행본을 간행하였다.<sup>1)</sup> 신호철은 그 이후에도 「高麗 太祖의 後百濟 遺民政策과 訓要 제8조」(『梨花史學研究』 30, 2003) · 「高麗初 後百濟系 人物들의 활동」(『한국중세사연구』, 2007) · 「후백제의 역사적 성격」(『韓國古代史研究』 74, 2014) 등 관련 글을 발표하며 연구를 이어갔다.

1998년에도 후백제 관련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다. 柳永哲의 『고려와 後百濟의 爭霸過程 研究』가 그것이다. 이 학위논문은 1장 「序論」, 2장 「고려 건국 초기 後百濟와의 관계」, 3장 「公山戰鬪의 배경과 전개과정」, 4장 「古昌戰鬪 전후의 양국관계」, 5장 「一利川戰鬪와 고려의 통일」로 구성되었다. 이 논문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연구』(景仁文化社, 2005)로 간행되었다. 이 연구는 후백제와 고려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단행본 출간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후백제보다는 고려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어 있다.

이후 후백제에 관해 연구 성과를 낸 인물로는 이도학을 들 수 있다. 이도학은 원래 백제사를 전공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후백제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는 대중서인 『진훤이라 불러다오』(푸른역사, 1998) · 『궁예 · 진훤 · 왕건과 열정의 시대』(김영사, 2000) ·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주류성, 2015) · 『후백제 진훤대왕』(주류성, 2015) 등을 통해 견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단행본에서 여러 부분을 언급했지만, 그가 반복해 강조한 주장의 하나는 『동사강목』에서도 언급하고 있는甄萱의 음가를 ‘견훤’이 아닌 ‘진훤’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외에도 「後百濟의 加耶故地 進出에 관한 檢討」(『白山學報』 58, 2001) · 「後百濟 甄萱 政權의 沒落過程에서 본 그 思想的 動向」(『韓國思想史學』 18, 2002) · 「後百濟甄萱의 農民施策에 관한 再檢討」(『白山學報』 62, 2002) ·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상 후백제사 서술의 문제점」(『한국전통문화연구』 2, 2004) · 「後百濟의 全州 遷都와 彌勒寺 開塔」(『한국사연구』 165, 2014) · 「後百濟와 吳越國 交流에서의 新知見」(『백제문화』 53, 2015) · 「後百濟와 高麗의 吳越國 交流 研究와 爭點」(『한국고대사탐구』 22, 2016) · 「後百濟의 降服 動線과 馬城」(『동아시아 문화연구』 65, 2016) ·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전

1) 신호철의 『後百濟 甄萱政權研究』에 대한 서평으로는 趙二玉, 「後百濟 甄萱政權研究」(『梨花史學研究』 20 · 21, 1993; 전기웅, 「申虎澈 著, 《後百濟 甄萱政權研究》(서울; 一潮閣, 1993.4)」, 『역사와 경계』 24, 1993) 등이 있다.

과 尙州와 聞慶 지역 호족의 동향」(『지역과 역사』 48, 2021) 등의 후백제 관련 논문을 연달아 발표하며, 신호철 이후 후백제사 연구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백제사를 전공으로 하다가 후백제사를 연구는 이로는 문안식도 있다. 그는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전남지역 호족세력의 추이」(『慶州史學』 22, 2003)를 발표한 후, 『후백제 전쟁사 연구』(혜안, 2008)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다. 단행본은 1장 「견훤의 거병과 후백제 건국」, 2장 「후삼국의 정립과 영역 확장」, 3장 「서남해지역 경략과 호족세력의 추이」, 4장 「궁예정권의 붕괴와 후백제의 영역 확장」, 5장 「조물성 전투와 후삼국의 정세 변화」, 6장 「전세의 역전과 후백제의 약화」, 7장 「후백제의 내분 발생과 멸망」으로 하여, 초기 형성부터 멸망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다. 하지만 이후 후백제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다.

또 고려 초기를 전공한 김갑동도 왕건의 세력 형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백제사 연구를 병행하였다. 그의 연구 성과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서경문화사, 2010)로 정리되었다. 이 단행본은 후백제만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2부(「후백제의 성립과 멸망」)에서는 1장 「후백제의 발전 과정과 영역의 변천」, 2장 「후백제와 고려의 마지막 전투와 멸망」, 3장 「후백제의 멸망 원인」이라 하여 후백제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 3부(「충남의 고려·후백제 쟁과 지역」)에서도 공주, 천안, 예산, 홍성, 부여 임천 등지의 후백제와 고려와의 전투가 크게 이루어졌던 지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도 했다.

이상을 통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관심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 또한 후백제사를 주전공으로 하기보다는 백제사나 고려사와 같이 타분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후백제에도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연구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후백제와 관련이 깊은 지역자치단체가 향토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역사문화콘텐츠 창출이라는 목적에서 후백제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필요성에 의해 후백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성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형태가 한 흐름으로 자리했다.

그러한 사례로는 2,000년에 백제연구소에서 백제연구총서의 일환으로 펴낸 『후백제와 견훤』(서경문화사, 2000)이 있다. 이 단행본은 논산시에서 견훤왕릉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로 간행된 것이었다. 이 단행본에는 신호철, 「후백제 견훤왕의 역사적 평가와 그 의미-고려 태조와의 정치 이념 및 호족·대외정책 등의 비교를 중심으로-」·李喜寬, 「甄萱의 後百濟 建國科程上의 몇 가지 問題」·金壽泰, 「甄萱政權과 佛教」·成正鏞, 「後百濟 都城과 防禦體系」·李文基, 「甄萱政權의 軍事的 基盤-특히 新羅 公兵組織의 再編과 關聯하여-」·권덕영, 「後百濟의 海外交涉 活動」·朴淳發, 「甄萱王陵考」·황인덕, 「진훤전설의 한 고찰」의 8편이 수록되었다.

이후에는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시가 지원한 학술대회가 주를 이룬다.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지였고 동고산성 등의 후백제 유적지도 존재하는 곳이다. 후백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셈이다. 더군다나 2,000년은 견훤이 전주에 나라를 세운 지 1,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당연히 이는 지자체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작용했으며, 전주시는 이를 기념해 후백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2차례의 학술대회를 지원했다. 그리고 학술대회 이후 이를 주관한 전북전통문화연구소는 그 성과물을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주류성, 2001)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발행했다. 이 책에는 전영래, 「後百濟와 全州」·이도학, 「甄萱의 出身地와 그 初期 勢力 基盤」·강봉룡, 「甄萱의 勢力基盤 擴大와 全州 定都」·김수태,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김주성, 「930年代 後百濟 政權 內部的 動向」·김갑동, 「後百濟 甄萱의 戰略과 領域의 變遷」·정청주, 「甄萱과 豪族勢力」·이강래, 「『三國遺事』 ‘後百濟 甄萱’條의 再檢討」·윤명철, 「後百濟의 海洋活動과 對外交流-全州時期를 中心으로-」·조범환, 「後百濟 甄萱政權과 禪宗」·조범중, 「後百濟 甄萱의 歷史繼承認識」·송화섭, 「全州的 城隍神仰과 甄萱政權」·서혜숙, 「甄萱說話의 傳承樣相과 歷史認識」의 13편을 수록하였다.

전주지역에서의 후백제 관련 학술대회는 계속되었는데, 후백제문화사업회 주관으로, 2002년에는 「후백제의 대외교류」, 2003년 12월에는 「한국·동아시아 역사상 후백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때 발표된 논문들을 전주국립박물관이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공감, 2015)로 묶어 간행하였다. 이 단행본에는 신호철, 「후백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김수태, 「후백제의 대신라·고려 관계」·변동명, 「후백제의 해상활동과 대외관계」·유병하·나병호, 「궁예도성과 견훤도성」·곽장근, 「후백제 왕궁과 도성체계 연구」·이동희, 「전남지역의 후백제 유적과 역사적 성격」·진정환, 「후백제 불교조각의 대외교섭」의 7편이 담겼다.

2020년 11월에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견훤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

로 특별전시회가 열렸는데, 국립전주박물관은 전시회에 맞춰, 『甄萱, 새로운 시대를 열다』(국립전주박물관, 2020)의 제목으로 도록집을 겸한 단행본을 간행했다. 이 책에는 이도학, 「진훤과 후백제의 꿈과 영광」·조연남, 「견훤대왕의 숨결이 살아 있는 상주 견훤사당과 洞祭」·송화섭, 「후백제의 몰락과 고려 왕건의 음모설」·윤태영, 「統一新羅時代 末期의 考古學成果」·정동락, 「신라 하대 선종의 수용과 전개과정」·변동명, 「후백제의 해상활동」·최인선, 「전남 지역의 후백제 문화」·최우중, 「전주지역의 후백제 유적들」·최승선, 「후백제 도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김왕국, 「익산 왕궁리 사리장엄구는 누가 넣었을까」·진정환, 「후백제와 익산」·문안식, 「후백제-고려의 전쟁과 그 양상」·조영일, 「후백제 산성의 특징」·서유리, 「우리나라 초기 청자 등장에 대하여」·조법중, 「견훤, 역사정통성 확립과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천명하다」·이종철, 「완주 鳳林寺址의 발견과 발굴」·박정민, 「후백제-태봉 역사벨트 구축과 실천 과제」 등의 대중들을 위해 쉽게 쓴 설명문과 확장근, 「고고학으로 찾아낸 후백제의 미래전략」·진정환, 「후백제 문화의 특성과 그 배경-불교미술품과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정상기, 「진안 도동리 초기청자 가마와 후백제」·강원중, 「동고산성 운영주체의 변화-성문 형식을 중심으로-」·차인국, 「후백제 기와의 특징과 사용 방식」·엄원식, 「문경·상주지역에 남아 있는 견훤의 흔적들」 등의 전문적인 논문이 실렸다.

당시 국립전주박물관은 이 전시와 연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COVID-19사태로 인해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발표하기로 한 글들을 모아 단행본 『후백제와 견훤』(서경문화사, 2021)을 출간하였다. 여기에는 이도학, 「총론-후백제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김갑동, 「후삼국 시대 태동의 사회, 문화적 배경」·허인욱, 「견훤의 出自 관련 논의 재검토」·강봉룡, 「견훤의 해양패권 쟁탈전 始末-왕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최홍선, 「古土城으로 본 後百濟 全州都城 一考察」·조명일, 「후백제 산성의 특징」·진정환, 「불교미술품으로 본 후백제 문화의 특성」·조법중, 「역사문화권 특별법과 후백제 문화권 정립」의 7편을 게재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00년 이후에는 학술대회가 꾸준히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후백제사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는 연구자 각자가 개인의 견해를 발표하는 자리에 그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많지 않은 후백제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후백제사 연구에 진전을 가져왔다. 그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전문연구자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후백

제사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학술대회를 통한 집중 논의가 유용한 연구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3. 주제별 연구 동향

이 장에서는 ① 견훤 出自 관련 연구, ② 정치세력의 형성, ③ 후백제와 고려·신라와의 충돌, ④ 멸망과 그 유민, ⑤ 대외관계, ⑥ 불교 및 문화 관련 연구, ⑦ 고고학 및 도읍지 연구 성과, ⑧ 지자체와 스토리텔링 및 ⑨ 기타로 주제를 나누고, 각각의 주제별로 그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 ① 견훤 出自 관련 연구

후백제와 관련한 논란 가운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견훤의 出自와 관련한 문제이다. 『三國史記』에는 견훤의 고향을 加恩縣, 즉 지금의 경상도 聞慶출신, 『三國遺事』에는 전라도 光州출신이라는 내용이 각기 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 또한 문경과 광주를 지지하는 두 입장으로 나뉘어 각자의 견해를 제기하여 왔다. 출자문제와 아울러 견훤의 父로 나타나는 阿慈介와 尙州賊帥로 나타나는 阿慈蓋의 동일인 여부도 논의가 함께 되고 있다. 상주에 세력을 가진 阿慈蓋가 견훤의 부가 맞다면, 아무래도 문경출신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경출신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동일인을, 광주출신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동일인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견훤의 혈통을 신라계로 언급하고 있는 『李磾家記』의 내용도 출신지 문제와 맞물려,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문경설을 지지하는 견해로는 신호철, 申虎澈, 甄萱의 出身과 社會的 進出」·「甄萱關係 諸異說의 檢討」(『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93); 李道學, 「甄萱의 出身地와 그 初期 勢力 基盤」(『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로 「진훤이라 불러다오」(푸른역사, 1998)·「후백제 진훤대왕」(주류성, 2015)·「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전과 尙州와 聞慶 지역 호족의 동향」(『지역과 역사』 48, 2021) 등이 있으며, 광주설을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金庠基, 「甄萱의 家鄉에 對하여」(『東方史論叢』, 서울大學校出版部, 1986); 朴敬子, 「甄萱의 勢力과 對王建關係」(『淑大史論』 11·12합, 1982); 邊東明, 「甄萱의 出身地 再論」(『震檀學報』 90, 2000) 등이 있다. 이외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견훤 출생과 성장에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출생은 광주에서 성장은 문경에서 이루어



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허인욱, 「견훤의 出自 관련 논의 재검토」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21)도 있다.

## ② 정치 세력의 형성

후백제 연구 가운데 많은 부분은 견훤의 정치세력 형성이나 정치 변동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견훤의 정치세력 형성 등과 관련해서는 전남지역이 관심 주제의 하나였다. 전남은 견훤이 서남해 지역을 방수한 곳이며, 견훤과 관련이 깊은 武州城主 池萱, 昇州將軍 朴英規, 引駕別監 金摠 등과 관련된 곳으로, 초기 세력 형성에 있어 의미가 깊기 때문이다. 관련 글로는 鄭淸柱, 「甄萱과 豪族勢力」(『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2001) · 「甄萱의 豪族政策」(『역사학연구』 19, 2002); 문안식,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전남지역 호족세력의 추이」(『경주사학』 22, 2003); 이윤미, 「9世紀 後半 武州地域의 政治的 動向과 甄萱의 自立」(『역사교육논집』 44, 2010); 배재훈, 「견훤의 군사적 기반」(『新羅文化』 36, 2010); 변동명, 「新羅末 · 高麗初의 順天 豪族 朴英規」(『역사학연구』 62, 2016) 등이 있다.

이어 전주 천도이후 멸망시까지의 김주성, 「930년대 후백제 정권 내부의 동향」(『복현사림』 23-1, 2000;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재수록); 李道學, 「後百濟 甄萱 政權의 沒落過程에서 본 그 思想的 動向」(『韓國思想史學』 18, 2002) · 이도학, 「後百濟의 全州 遷都와 彌勒寺 開塔」(『한국사연구』 165, 2014); 김갑동, 「후백제의 멸망과 견훤」(『한국사학보』 12, 2002); 배재훈, 「입당 유학생 최승우와 후백제 견훤 정권」(『新羅史學報』 26, 2012); 진정환, 「후백제 주도 세력의 변화와 그 영향」(『新羅史學報』 51, 2021) · 「後百濟王 甄萱의 900~901年 言行的 意味」(『전북사학』 57, 2019) 등이 있다.

이외에 특정 시기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문기, 「견훤정권의 군사적 기반-특히 신라 공병조직의 재편과 관련하여-」(『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姜鳳龍, 「甄萱의 勢力基盤 擴大와 全州 定都」(『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金壽泰,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김갑동, 「후삼국 시대 태동의 사회, 문화적 배경」(『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21) 등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정치세력에 대한 다룬 논문으로는 김수태, 「후백제 견훤정권의 성립과 농민」(『백제연구』 29, 1999); 이도학, 「後百濟甄萱의 農民 施策에 관한 再檢討」(『白山學報』 62, 2002); 송화섭, 「후백제 견훤 정권의 고부 경영과 해상교통」(『전북사학』 49, 2016)이 있다.

### ③ 후백제와 고려·신라와의 충돌

후백제와 관련된 기록은 매우 소략한 편이다. 남아 전하는 내용들조차 대부분은 고려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들이다. 전쟁 관련 기록이 많은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대부분 후백제사는 전쟁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태봉·고려나 신라와의 충돌에 대해서는 김갑동, 『後百濟 甄萱의 戰略과 領域의 變遷』(『軍史』 41, 2000; 『후백제 건원정권과 전주』, 2001 재수록); 황선영, 『後三國의 外交關係』(『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韓國中世史學會, 2001); 柳永哲, 『曹物城싸움을 둘러싼 高麗와 後百濟』(『國史觀論叢』 92, 2000) · 『一利川 戰鬪와 後百濟의 敗亡』(『大丘史學』 63, 2001); 이인재, 『나말여초 사회변동과 후삼국』(『한국중세사연구』 29, 2010);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권영오,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올림』(『한국고대사탐구』 13, 2013); 이도학, 『後百濟의 加耶故地 進出에 관한 檢討』(『白山學報』 58, 2001) · 『後百濟의 降服 動線과 馬城』(『동아시아문화연구』 65, 2016); 김수태, 『후백제의 대신라 고려 관계』(『한국중세사연구』 41, 2015)가 있다.

후백제와 고려와의 충돌과 관련해서 해전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관련 연구로는 姜鳳龍, 『後百濟 甄萱과 海洋勢力-王建과의 海洋爭鬪를 중심으로-』(『역사교육』 83, 2002) · 『건원의 해양패권 쟁탈전 始末-왕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2021); 愼成幸, 『태봉과 후백제의 덕진포해전』(『군사』 62, 2007)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 『후백제의 수군활동과 전략전술』(『한국중세사연구』 36, 2013) ·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한국중세사연구』 47, 2016)<sup>2)</sup> 등이 있다.

### ④ 멸망과 그 유민

후백제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金甲童, 『高麗太祖 王建과 後百濟 神劍의 전투』(『滄海朴秉國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4); 김주성, 『930년대 후백제 정권 내부의 동향』(2000) 류영철, 『일이천전투와 후백제의 패망』(『대구사학』 63, 2001); 이도학, 『後百濟의 降服 動線과 馬城』(『동아시아문화연구』 65, 2016)이 있으며, 유민관련해서는 신호철, 『高麗 太祖의 後百濟 遺民政策과 ‘訓要’ 제8

2) 신성재의 관련 글들은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2016, 혜안)와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혜안, 2018)에 실려 간행되었다.

조'」(『梨花史學研究』 30, 2003) · 「高麗初 後百濟系 人物들의 활동」(『한국중세사학보』, 2007); 허인욱, 「井邑 山內 龍藏寺 관련 기록의 검토-後百濟代 창건을 중심으로-」(『전북사학』 48, 2016)가 있다.

현재 전하는 『고려사』 등의 기록들을 보면, 후백제 멸망 후에 큰 문제없이 후백제인들이 고려로 흡수되거나 혹은 융화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주저되는 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한다. 후백제 유민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楊水尺이 후백제의 遺種<sup>3)</sup>이라는 『고려사절요』의 기록이나, 木川 지방의 5姓이 고려에 비협조적이어서 畜姓을 받았다<sup>4)</sup>는 이야기 등이 파편으로나마 전하고 있어 후백제 유민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작은 조각일 뿐이기는 하지만, 이를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후백제 유민의 모습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든다.

#### ⑤ 대외관계

후백제는 고려와의 갈등관계를 해외 교류를 통해 풀어나가기도 했는데, 그 주 대상은 절강지역에서 위치한 吳越이었다. 물론 북중국 지역에 성립한 五代 국가와의 교류도 없지는 않았다. 대중국 관련 연구로는 권덕영의 「後百濟의 海外交涉 活動」(『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尹明哲, 「後百濟의 海洋 活動과 對外交流-全州時期를 中心으로-」(『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가 있으며, 盧向前, 「吳越國與百濟關係略論」 『浙江學刊』 2005-2; 김수태, 2015, 「후백제의 대신라 · 고려 관계」(『한국중세사연구』 41, 2015;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 2015 재수록); 邊東明, 「後百濟의 海上活動과 對外關係」(『한국고대사탐구』 19, 2015;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 2015 재수록); 李道學, 「後百濟와 吳越國 交流에서의 新知見」(『백제문화』 52, 2015) · 「後百濟와 高麗의 吳越國 交流 研究와 爭點」(『한국고대사탐구』 22, 2016); 허인욱, 「後百濟의 對중국 교류 연구」(『사학연구』 122, 2016); 김갑동, 「후삼국의 대중국 외교」(『한국중세사연구』 49, 2017) 등이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全基雄, 「나말여초의 對日關係史 研究」(『한국민족문화』 9, 1997); 야마사키 마사토시, 「甄萱政權과 日本의 交涉」(『韓國古代史研究』 35, 2004); 박현숙, 「외교문서를 통해 본 후백제와 일본의 외교 양상」(『歷史學報』

3) 『高麗史節要』 卷14, 高宗 3年 9月.

4) 『增補文獻備考』 · 『大東韻府群玉』 · 『研經齋全集』 · 『南溪集』 · 『順菴集』 · 『谿谷集』.

236, 2017)이 있다.

⑥ 불교 및 문화 관련 연구

2000년대 이후 후백제의 문화 등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났다. 견훤은 불교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金壽泰, 『甄萱政權과 佛敎』(서경문화사, 2000); 曹凡煥, 『後百濟 甄萱政權과 禪宗』(『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2001); 장일규, 『신라 하대 서남해 지역 禪僧과 후백제』(『韓國古代史研究』 74, 2014)가 있다. 이 가운데 김수태는 불교의 특정사상을 고집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전제군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불교미술과 관련된 연구도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그 성과로는 崔聖銀, 『後百濟地域 佛敎彫刻 研究』(『美術史學研究』 204, 1994); 배재훈,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百濟研究』 50, 2008); 진정환, 『後百濟 佛敎美術의 特徵과 性格』(『東岳美術史學』 11, 2010) · 『後百濟 佛敎彫刻의 對外交渉』(『百濟研究』 61, 2015) · 『後百濟의 佛敎美術과 그 影響』(『전북사학』 47, 2015) · 『後百濟 佛敎彫刻의 對外交渉』(『百濟研究』 61, 2015); 「실상사 승탑 조영으로 본 실상산문과 정권」(『불교미술사학』 23, 2017) · 「후백제 불교미술품과 고고자료의 검토」(『湖南考古學報』 61, 2019) · 「후백제와 태봉 불교석조미술품의 특징과 영향」(『東岳美術史學』 27, 2020) · 「불교미술품으로 본 후백제 문화의 특성」(『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21); 이종철, 「완주 鳳林寺址 三尊石佛의 훼손과 변천에 대한 試論的 考察」(『전북사학』 52, 2018) 등이 있다.

불교작품과 관련되어 상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유물 가운데 하나는 탑이다. 그 가운데 큰 관심을 받는 유물로 왕궁리 5층탑이 있다. 왕궁탑의 제작시기와 관련해서 백제설, 통일신라설, 고려초설과 더불어 후백제설도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이다. 1965년 석탑 해체작업으로 내부에서 사리장엄의 자료가 확인되고 해체 과정에서 신라 말로 보이는 금동불이 발견되면서 10세기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고려초설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견훤에 의한 건립설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鄭善宗, 「백제계석탑에 관한 일고찰-건립배경과 시기를 중심으로-」(『史學志』 20, 1986); 최성은, 「나말여초 소형금동불입상 연구-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출토 금동불입상을 중심으로-」(『미술자료』 58, 1997); 천득염, 『백제계석탑 연구』(전남대출판부, 2000); 박지훈, 「백제계 석탑의 특징과 건립배경」(『江原史學』 27, 2015); 윤용혁, 「익산 왕궁리오층석탑과 후백제」(한국중

세사연구』 57, 2019)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기단부의 외관이 10세기 초 후백제 기 중수 때에 변형된 것으로 보면서, 불상도 이 시기에 가입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견해는 한정호의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과 사리장엄구 연구』(『신라사학보』 17, 2009); 진정환의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과 성격』(『동악미술사학』 11, 2010)에서 제기되었다. 탑과 관련한 연구로 朴慶植의 『百濟系石塔의 建立 背景에 關한 考察』(『文化史學』 24, 2005)도 있다.

이외에 진안의 도통리에서 발굴된 청자 파편을 바탕으로 하여, 청자의 유래 시기를 달리 볼 것을 주장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곽장근은 『진안고원 초기청자의 등장배경 연구』(『전북사학』 42, 2013)에서 후백제와 오월의 월주요와 연관성이 있음을 거론하며, 초기 청자의 유입이 이때에 이루어졌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서유리도 『우리나라 초기 청자 등장에 대하여』(『견훤, 새로운 시대를 열다』(국립전주박물관, 2020)에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불교문화와 관련해서는 진정환의 연구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고학적 발굴 성과 덕분에 초기 청자 관련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백제 문화 관련 연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문화 유물 혹은 유적 관련 연구는 후백제의 존속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과 명문으로 후백제의 유물 혹은 유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물을 통한 후백제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추후 이와 관련된 논란이 얼마든지 재현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⑦ 고고학 및 도읍지 연구 성과

후백제사의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문헌사료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고고학적 발굴이 많아지면서 이를 통한 연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후백제 도읍과 관련된 발굴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주된 관심사를 이루었는데, 2010년 이후에 역사도시로의 정체성을 가진 전주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전주시의 필요성에 의해 후백제 도성의 위치에 대한 탐구가 집중되었던 셈이다.

견훤 도성과 관련한 논의는 동고산성 발굴 결과 ‘全州城’이라는 명문이 새긴 기와가 발굴되면서부터였다(全榮來, 『全州, 東固山城概括調査報告』(全北遺蹟調査報告 第11輯), 全州市立博物館, 1980). 이후 『全州 東固山城(전북문화재연구원·전주시, 2006·2011); 『전주동고산성 서문지 발굴조사 보고서』(전주

문화유산연구원·전주시, 2015); 『후백제 도성벽 조사보고서』(국립전주박물관, 2016); 『전주 풍남동 후백제 도성 추정지 발굴조사 보고서』(국립전주박물관, 2017) 등의 발굴 결과가 쌓이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었다. 成正鏞, 「後百濟 都城과 防禦體系」(2000); 김영태, 「전주 동고산성의 성격에 대한 소고-6차 발굴조사를 중심으로-」(『한국성곽학보』 17, 2010); 姜元鍾, 「全州 東固山城의 考古學的 檢討」(『韓國古代史研究』 74, 2014)·「동고산성 성문의 형식변화에 대한 검토」(『湖南考古學報』 54, 2016); 정재용, 「후백제 도성 동고산성의 보존과 활용」(『韓國古代史研究』 74, 2014); 정재윤, 「후백제 도성 동고산성의 보존과 활용」(『韓國古代史研究』 74, 2014); 김주성, 「후백제의 왕궁 위치와 도성 규모」(『韓國古代史研究』 74, 2014)·「후백제 왕궁성의 위치와 그 활용방안」(『初等教育研究』 26, 2015); 曠장근, 「後百濟 王宮과 都城體制 研究 試論」(『전북사학』 47, 2015); 「후백제 왕궁과 도성체제 연구」로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 2015에 재수록; 兪병하·나병호, 「궁예도성과 견훤도성」(『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 2015); 최홍선, 「후백제 도성 신자료 소개」(『동원학술논문집』 17, 2016)·「古土城으로 본 後百濟 全州都城 一考察」(『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21) 등이 있다.

그리고 전남지역의 고고학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최인선, 「順天 鴻內洞土城에 對한 研究-순천의 호족 박영규를 중심으로-」(『한국성곽학보』 18, 2010)·「광양 마로산성 출토 막새기와에 대한 고찰」(『文化史學』 33, 2010); 이동희, 「전남지역의 후백제유적과 역사적 성격」(『한국상고사학보』 87, 2015;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 2015 재수록) 등이 있다. 순천은 견훤의 방수처로 생각되는 곳으로, 그가 세력을 모으기 시작한 곳에 해당한다. 특히나 이곳의 호족인 박영규가 견훤의 사위라는 점에서 순천지역과 마로산성 등은 후백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후백제의 산성체계와 관련해서는 曠장근, 「後百濟 防禦體系 研究 試論」(『백제문화』 55, 2016)·「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호남고고학보』 57, 2017); 조영일, 「후백제 산성의 특징」(『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21) 등이 있다. 曠장근은 『산경표』의 산줄기를 바탕으로 후백제가 구축한 외곽방어체계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산줄기를 천연의 방어선으로 삼았는데, 모두 전주로 향하는 내륙교통로가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한다고 봤다.

이외에 차인국은 「완주 봉림사지 기와의 변천과 후백제」(『湖南考古學報』 66, 2020)를 통해 아직 완벽하게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조사된 봉림사지의 기와가 전주 동고산성이나 광양 마로산성 등의 기와와 유사한

점을 언급하며, 후백제와의 연관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 ⑧ 지자체와 스토리텔링

후백제 연구의 최근 경향 가운데 하나는 후백제의 유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글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삼국시대라는 시기를 설정하고 궁예가 세운 태봉과의 연계 속에서 후백제 유적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주성, 「후백제 왕궁성의 위치와 그 활용방안」(『初等教育研究』 26-1, 2015); 박정민·김동영·권이선, 「태봉(후고구려)-후백제 역사벨트 조성의 현대적 계승」(『글로벌문화콘텐츠』 42, 2020); 광장근, 「고고학적으로 찾아낸 후백제와 미래전략」(『견훤, 새로운 시대를 열다』(국립전주박물관, 2020); 조법중, 「역사문화권 특별법과 후백제 문화권 창립」(『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21) 등이 있다.

스토리텔링을 염두에 두고 쓴 글들은 아니지만, 朴淳發, 「甄萱王陵考」(『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조법중, 「後百濟 全州의 都城구성에 나타난 四靈체계-전주 거북바위의 성격을 중심으로-」(『韓國古代史研究』 29, 2003) · 「後百濟 ‘全州’와 中國 ‘全州’의 관계」(『白山學報』 65, 2003) · 「역사도시 전주의 도시구성변화와 특성-후백제시기와 이후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건축역사연구』 14-2, 2005); 손종흠, 「견훤문학의 문예콘텐츠화에 대한 연구-完山謠를 중심으로-」(『한국시가문화연구』 35, 2015); 광장근, 「새만금 속 한중문화교류」(『한중관계연구』, 2016); 조성욱, 「전주 덕진연못(德津池)의 용도 및 축조시기와 장소성 변화」(『한국지리학회지』 10-1, 2021) 등도 이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민속학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황인덕, 「진훤전설의 한 고찰」(『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송화섭, 「全州的 城隍信仰과 甄萱政權」(『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서해숙, 「甄萱說話의 傳承樣相과 歷史認識」(『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천혜숙, 「견훤 출생담의 신화학적 검토-출생지 또는 출계 문제를 중심으로-」(『口碑文學研究』 52, 2019) · 「청도지역의 견훤전승과 사실 또는 형상의 역사」(『실천민속학연구』 33, 2019); 임원식, 「문경·상주지역에 남아 있는 견훤의 흔적들」(『甄萱, 새로운 시대를 열다』, 국립전주박물관, 2020) 등이 있다.

#### ⑨ 기타

후백제와 관련된 전반을 설명하는 글로는 신호철, 「후백제 견훤왕의 역사적

평가와 그 의미-고려 태조와의 정치 이념 및 호족·대외정책 등의 비교를 중심으로-」(2000)·「후백제의 역사적 성격」(『韓國古代史研究』 74, 2014)이 있고, 우리 역사에서 후백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글로는 조법중, 「후백제 甄萱의 역사계승인식-高句麗 및 百濟의 馬韓계승인식을 중심으로-」(『사학연구』 58·59, 1999; 『후백제 건원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재수록); 이강래, 「후백제의 당대 인식-토대와 지향의 맥락에서-」(『韓國古代史研究』 35, 2004)가 있다. 이외에 고려 왕건의 입장에서 후백제를 바라 본 金光錫, 「高麗太祖의 歷史認識 2-그의 後百濟觀을 中心으로-」(『白山學報』 28, 1991)도 있다.

후백제 관련 자료에 대해 살펴본 글로는 李康來, 「『三國遺事』 ‘後百濟 甄萱’條의 再檢討」(『후백제 건원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전덕재, 「『삼국사기』 공예·건원열전의 원전과 편찬」(『역사와 경계』 116, 2020)이 있다. 또 후백제에 대한 현재 학계의 서술 등을 다룬 김수태, 「근·현대 한국 사학의 후백제 서술」(『한국고대사연구』 35, 2004); 이도학,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상 후백제사 서술의 문제점」(『한국전통문화연구』 2, 2004)이 있다.

#### 4. 후백제 연구의 향후 과제

앞 장의 정리를 통해 후백제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그 분야도 조금씩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연구자의 부족, 사료의 한계 등이 존재함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향후 후백제사 연구를 위해 유념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 1) 후백제 활동무대의 범위 재고

현재까지의 후백제 연구는 전라도와 충청도 남부의 일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하지만 후백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이 포함될 듯하다. 먼저 세력형성기의 활동무대와 관련해서는 眞聖王 10년(896)에 서남쪽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赤袴賊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도적무리는 주현을 도륙하고 경주의 서부에 위치한 牟梁里까지 진입해 노략질을 했기 때문이다.<sup>5)</sup> 이 도적은 『삼국유사』의 眞聖王代에 모량리까지 와서 孫順이 찾은 石鐘을 뺏아갔다는 百濟橫賊<sup>6)</sup>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진성왕대에 모량리까지



진출한 무리라는 점에서 같은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즉 이 백제형적은 후백제 군대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889년을 기점으로 정치체를 형성<sup>7)</sup>한 후백제가 896년에 경주지역까지 침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백제의 세력형성 초기의 활동범위가 경주 인근까지였음을 말해주는 사료인 셈이다.

국가 성립 후에도 그 영향력이 호남과 충청도 일부에 그친 것만은 아니었다. 후백제가 영향력을 미쳤던 곳으로는 먼저 청주를 들 수 있다. 이는 충북 청주의 미호천과 무심천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정북동토성 기록이 도움을 준다. 정북동토성은 네모 모양 토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 토성과 관련해 영조 21년(1774)에 僧將 靈休가 쓴 『上黨山城古今史蹟記』에는 “건훤은 낮과 밤으로 2백여 리를 걸어 弓裔가 지키고 있던 上黨山城을 빼앗고 서문 밖 까치내[鵲江]에 토성을 쌓아 창고를 짓고 세금을 거둬 성안으로 운반해 갔다.”는 내용이 전하는 것이다. 후백제의 군대가 상당산성과 정북동토성을 점거했음을 말해주는 사료이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지는 기록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궁예와의 충돌 시기에 그 활동범위가 청주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기록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후백제와 관련 있는 곳으로는 건훤의 출생지라는 전설과 건훤성이라 불리는 加恩縣古城<sup>8)</sup>이 존재하는 경북 聞慶이나 병산전투를 치른 안동지역도 거론이 가능하다.

후백제는 지금의 부산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훤이 924년에 絶影島의 驄馬 1필을 왕건에게 선물하였다<sup>9)</sup>는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절영도는 지금의 부산 앞바다의 영도를 말하기 때문이다. 즉 절영도의 말을 선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이곳을 안정적으로 후백제가 소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건훤의 아들 가운데 양검이 지금의 진주지역인 康州都督<sup>10)</sup>이었음을 고려하면, 부산지역까지 활동범위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sup>11)</sup>

5)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10年.

6) 『三國遺事』 卷5, 孝善 孫順埋兒.

7)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 研究』, 一潮閣, 1993, 41~43쪽.

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慶尙道 聞慶縣.

9) 『高麗史節要』 卷1, 太祖 9年 4月.

『三國史記』에는 건훤이 924년 8월에 驄馬를 선물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10)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11) 전설이기는 하지만 경북 정도에는 건훤의 출생 관련 설화가 존재하며, 건훤이 세웠다는 전설이 전하는 지룡산성도 존재한다. 건훤 전설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후백제의 활동 무대 혹은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와 충청도 북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후백제를 연구함에 있어, 후백제의 통치력이 미치는 호남지역과 충청지역 일부 지역 외에 좀 더 넓은 범위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 2) 연구자의 저변 확대 필요

후백제 연구는 신호철에 의해 자리를 잡은 이후에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다만 후백제를 주제로 한 전문연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은 매우 적다는 점에서는 아쉬움 또한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후백제와 관련 연구자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는 그만큼 후백제 역사가 연구 주제로서 충분히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즉 연구자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좀 더 많은 연구자가 후백제사를 연구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선의 결과는 박사학위논문 후백제로 하는 전문연구자를 다수 육성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헌자료나 발굴성과의 한계로 인해 후백제 전문연구자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아울러 후백제 전문연구자가 배출된다 하더라도 그 전공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도 전공자의 등장을 가로막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혹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연구소나 근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전문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후백제 전공자의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동고산성과 연계된 ‘후백제 박물관’을 만들고 그곳에 전문연구원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 전주시와 같은 지자체가 후백제 유적 등을 이용하여 관광콘텐츠를 만들고자 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 아닐까.

또 다른 아쉬움으로는 자료 등의 한계로 인해 후백제 전공자가 빠른 시간 안에 다수 육성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타분야 연구자 이더라도 후백제 연구를 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이 또한 자료 접근의 수월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 3) 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 (1) 문헌자료의 적극적 발굴과 정리

전문연구자의 양성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의 부족이다. 후백제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부족이나 연구 성과의 폭이 넓지 않은 것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하지만 후백제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과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의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더군다나 중복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사료의 양은 더욱 줄어든다.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 자료에 대한 이해와 史論을 제외한 견훤열전 기록은 모두 3,716자인데, 이 가운데 927년 후백제의 신라 왕도 침략 및 공산전투에 관한 기록이 199자, 견훤과 왕건이 주고받은 서신 1,027자, 그와 관련된 기록 55자, 합이 1,082자, 후백제의 내분 및 멸망을 다룬 기록 도합 1,193자에 불과하다.<sup>12)</sup> 『삼국유사』나 『고려사』 등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다면 여기서 아주 사료의 분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양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기존 자료 외에 다른 기록의 발굴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기존의 자료와 함께 이용되는 자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견훤의 복전인 관해가 언급되는 『均如傳』의 『第四立義定宗分者』나, 후백제 왕자로 알려진 月光의 이야기가 담긴 『伽倻山海印寺古籍』 그리고 조선 후기 자료지만 정읍 태인에 龍藏寺를 세운 조통화상을 언급하고 있는 『無竟集』의 『雲住山龍藏寺事蹟記』나 『東國輿地志』 등의 기록 등을 이용해 기존에 언급하지 않은 연구성과<sup>13)</sup>가 나오기도 했다. 『江南樂府』에 전하는 순천의 城隍神 金攄과 海龍山 山神 朴英規의 자료<sup>14)</sup>는 후백제 성립 초기 세력 형성과 관련한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朝鮮襄興勝覽』에는 당진의 舍德堤와 관련해, “옛날 甄萱兵이 完산에

12) 이 가운데 견훤의 출생과 성장, 후백제의 건국과정, 그리고 후백제의 신라 왕도 침략 및 견훤과 왕건이 주고받은 서신 관련 기록, 후백제의 내분과 멸망 관련 기록이 거의 78% 가량 차지한다(전덕재, 『『삼국사기』 궁예·견훤열전의 원전과 편찬』 『역사와 경계』 116, 2020, 23~24쪽).

13) 허인욱, 2016, 앞의 논문.

14) 『江南樂府』 金別駕 麟蹄山.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김충이 순천의 성황신, 박영규가 해룡산의 산신이 되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40, 全羅道 順天都護府 人物)는 내용이 동일하게 전한다. 다만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김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박영규는 ‘康英規’로 나타난다(『世宗實錄』 卷151, 地理志 全羅道 長興都護府 順天都護府 人物).

서 패한 후 호수의 서쪽에 와 주둔하였는데, 산에 터를 닦고 제방을 쌓아 병마의 飲池로 삼았다.”<sup>15)</sup>는 내용도 찾아진다. 이외에도 1895년경에 편찬된 『光州邑誌』에는 甄萱臺와 放牧坪<sup>16)</sup> 등의 전설이 전하기도 하는 등 견훤과 관련된 흔적들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른 시기의 完山甄氏 집안의 족보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完山甄氏世譜』(청구기호: 999.11-권131사0)가 소장되어 있다. 이 족보에는 아자개의 부인 가운데 1인인 南院夫人이 甄氏로 되어 있기도 하며, 아자개가 백제 義慈王의 아들인 扶餘隆의 8대손으로 되어 있는 등 견훤의 견씨 변성이나, 후백제를 세운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sup>17)</sup>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의 자료 외에 이러한 자료들의 존재는 아직도 발굴이 안 된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물론 이러한 기록들이 역사 자료로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삼국사기』 등의 자료 외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후백제와 관련된 자료가 희박한 현실에서 이러한 자료들이라도 수집하고 정리해 둔다면, 연구자 가운데 누군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 고고학 성과의 집적과 제공

2000년대 이후 후백제 연구의 방향이 문헌 연구의 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으로 인해 고고학적 발굴이 부각되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도성 위치를 비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발굴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발굴 보고서가 많이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백제 연구가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영향도 나타났다.

하지만 발굴 성과를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발굴보고서의 경우 시중에서 구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도서관에도 완비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도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담긴 보고서의 발간이 늘 것임은 명확하다. 연구자들이 봐야 할 자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하지만 이는 발굴보고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구자들에게 한정된다. 뒤늦게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쉽게 구해볼 수 없다. 이는 후백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나

15) 『朝鮮襄興勝覽』 忠淸道 唐津郡 山川 舍德堤.

16) 『光州邑誌』 古跡.

17) 다만 이 족보는 1962년에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의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를 위해 좀 더 이른 시기의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온다 하더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자를 발굴하고 연구 주제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좀 더 나은 연구물들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서 문헌자료의 발굴 및 정리 그리고 발굴보고서 등의 집적과 서비스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전문연구자를 많이 육성하기 어려운 후백제사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중하는 분야를 제외한다면, 연구자들도 일반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발품을 많이 파는데, 결과물이 적게 나오는 연구보다는 발품을 적게 팔아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이다. 이 가운데 후백제사는 발품은 많이 팔아야 하지만, 연구성과는 그리 많이 나오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문헌 기록 등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박사학위자가 나오기 어려운 원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자료 확보 등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면, 타 분야 전공자 가운데서도 후백제 관련 논문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는 『고려사』 등의 자료와 함께 각종 지리지나 기타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 고고학 발굴 자료나 보고서 등도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면, 좀 더 양질의 연구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 자료의 접근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인터넷을 통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sup>18)</sup> 좀 더 많은 이들이 후백제 연구자를 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맺음말

후백제 관련 연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

18) 연대 비정을 통한 시대순 자료의 정리와 원문과 더불어 번역본 그리고 발굴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만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는 많은 연구자들이 후백제사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철원군 등과 함께 ‘후삼국’이라는 별도의 시대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그러할 경우 철원과 협약해 공동으로 후백제와 태봉 그리고 말기 신라를 포괄하는 후삼국 플랫폼을 운영해도 될 것 같다.

학자들의 연구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는 대개 연구자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전주와 같이 후백제와 관련이 깊은 지자체가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역사문화 콘텐츠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후백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지원·개최하고 그 성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형태가 하나의 흐름으로 대두했다.

후백제사의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문헌사료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와서는 발굴 작업이 증가했고, 발굴성고가 축적되면서 이를 통한 연구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후백제 도성의 위치 연구, 불교미술의 비교 연구 등의 증가가 그것이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의 증가는 문헌자료의 부족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료의 부족은 연구 분야의 확장과 전문연구자의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쉽지 않겠지만, 기존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외에 각종 지리지나 새로운 문헌자료의 발굴과 함께 이를 정리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고학 발굴보고서 등의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자료의 접근이 손쉬워진다면, 후백제 연구자의 폭이 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접수일: 2021. 10. 30. / 심사개시일: 2021. 11. 15. / 게재확정일: 2021. 12. 03.

##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寰輿勝覽』, 『均如傳』, 『無竟集』, 『東國輿地志』, 『光州邑誌』, 『江南樂府』, 『上黨山城古今史蹟記』

## 단행본

- 申虎澈, 1993,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국립전주박물관, 2020, 『甄萱, 새로운 시대를 열다』.  
국립전주박물관, 2021,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백제연구소, 2000,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이도학, 1998, 『진훤이라 불러다오』, 푸른역사.  
이도학, 2000, 『궁예·진훤·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이도학, 2015, 『후백제 진훤대왕』, 주류성.  
전북전통문화연구소, 2001,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전주국립박물관, 2015,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

## 논문

- 신호철, 2015, 「후백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  
이도학, 2021, 「총론-후백제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전덕재, 2020, 「『삼국사기』 궁예·견훤열전의 원전과 편찬」, 『역사와 경계』 116집, 1-32쪽.  
조법중, 2006, 「후백제와 태봉관련 연구동향과 전망」, 『신라문화』 27권, 187-203쪽.

<Abstract>

## The Late Baekje Research and Future Tasks

Heo, In-uk\*

Research on the late baekje began with Japanese colonial era Japanese scholars, and research by domestic scholars began in the 1960s. Research until the early 2000s was generally based on individual researchers' interests, but in the 2000s, local governments, such as Jeonju, supported and held academic conferences on the theme of the late baekje with the aim of securing regional identity and creating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and published their achievements as books.

The biggest difficulty in the study of the late baekje's history is that the amount of records is very small.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excavation work increased in the 2000s, and research through this is also on the rise as excavation results accumulate. This is due to the increase in research on the location of the late baekje capital and comparative research on Buddhist art. The increase in archaeological excavation results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ensates for the lack of literature data.

The reality is that the fact that there are very few literature source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xpansion of the research field and increase the number of professional researchers. Therefore, efforts to overcome this must be supported. It will not be easy, bu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amguksagi (三國史記)" and "SamgukYusa(三國遺事)" efforts need to be made to organize and provide various geographic or new literature material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need for databasing work that can provide data such as archaeological excavation reports so that researchers can easily access them. Through this, if data access becomes easier, it is expected that the range of researchers in the late baekje will be wider.

Key Words : The Late Baekje(後百濟), GyeonHwon(甄萱), Joenju(全州), The Later Three Kingdom epoch(後三國)

---

\* Professor of Hannam University